

14교구-2팀 단기선교 사역 보고서

1. 기 간 : 2016년 9월 29일(목) ~ 2016년 10월 7일(금) (8박 9일)
2. 국가/사역지역 : 스리랑카/웰리마다
3. 교구/교회학교 : 14교구 / 부
4. 팀 장 : 이 석 재 안수집사 (서명) 서기 : 김 성 옥 권사 (서명)
5. 보고일자 : 2016년 10월 23일
6. 보고내용 :

1. 사역에 대한 총평	지금까지의 선교는 개척선교, 오지선교라는 선교정책에 따라서 선교언어와 일반언어 25개 문항과 찬양을 통해서 전도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방법이었다면, 2016년도 선교는 사역자 발굴, 협력 선교 구축, 현지 사역 거점(가정교회) 마련이라는 선교정책에 따라 선교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가는 곳마다 현지인목사님과 집사님의 통역을 통해서 팀장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정교회를 세웠다. 2개 가정교회는 확실하게 주일부터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고, 2개는 조만간 세워질 거라고 하셨다. 현지인목사님과 협력하여 기존 성도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굳게 세우는 방법을 통하여 가정교회를 세워나가는 방식으로 선교가 이루어졌다. 또 가정교회 주변을 집중적으로 전도하여 성도의 수를 더하는 선교였다. 현지인목사님 교회의 성도 중에서 여성도 한 분을 추가로 동역자로 헌신하기로 결심하여, 세우기도 하였다. 이를 보면 금년의 선교는 현지 가정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새 신자를 늘려간다는 점에서 볼 때, 이번 선교는 무르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인 것으로 생각이 되었다. 앞으로 선교팀이 나갈 때, 팀에서 한 두 분은 예배 드릴 때 설교 말씀과 대중 사역에서 깊이 있는 복음의 말씀을 준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됩니다.
2. 추천할 내용	이번에도 총현교회 출신 윤해균 장로님의 헌신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계속해서 윤장로님을 통해 선교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곳 상황을 잘 알고 계시므로 의견을 듣고 행하니깐 많은 실수를 줄 일 수 있었다. 윤장로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서로를 잘 섬겨주시는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3. 개선할 내용	1.이번 11명 팀원이 너무 많아서 모든 준비 과정과 현지 사역에서도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등 통솔의 문제가 있었다. 좀 더 효율적이라면 그곳 현지인들과 함께 다녀야 할 것을 감안하여 8명 정도의 선교팀 인원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2.그곳에서 조별로 전도할 때, 현지인을 전도한 후에 교회 나오실 분들인 경우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현지인 목사님께 전달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었다. 앞으로 목사님이 그들을 심방하여 전도하고 양육하시는데 꼭 필요한 사진이었다. 그래서 핸드폰 사용에 대해 선교위원회에서 사용 매뉴얼을 정하고 가져가게 하는 것도 유용하다고 여겨집니다.
4. 선교위원회와 건의사항	1.사역자 발굴, 협력선교구축, 현지사역거점(가정교회)마련 이라는 선교정책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2.이번 스리랑카 선교에는 운전 기사인 사거리 형제가 신학을 하고 싶어 하고 또 품행이 단정하고 정직하며 한국어를 잘하고 외선부 동시통역과 우리 교회에서 결혼한 사람으로 우리교회와 협력이 매우 용이함으로 사역자로 추천을 하며 지원 가능한 방법 안에서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3.현지에 전해주는 선교헌금과 건축헌금 등에 대해 선교위원회 차원의 바람직한 방법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팀장에게 교육이 되고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협력 선교에 대해 구체적인 교육이 cmtc에서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해야 할 것들이 예전 선교 때보다 많고 다양하며 구체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7. 현지 및 기사 정보

• 정치/경제		안정적	• 종교상황 • 치안상황	불교나 무슬림 사람들은 신 고함	
• 교회에서 배운 선교언어 현지인의 이해 정도		싱할라언어를 모르는 타밀족들은 또 다시 통역을 해주어야만 했 다. 현지 사역자들이 있어 모두 수월했다.			
* 기 사 정 보		성명	주:사거리, (보조:사거리 처남)	차종	밴 10인승,13인승
1일 비용	7500루피(51달 러)	☎		추천 여부	적극 추천 (○) 보통 추천 () 적극 반대 () 한국어가능 (○) 영어 가능 ()
총 비 용	714달러(차량 2 대 사용)	이메일			
기사 평가		외선부 출신으로 믿음이 신실하여 복음을 전할 때도 통역을 담당해 주었고 친절하고 예의 바름.			

8. 추천하고 싶은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

도시 및 호텔명	요금(USD)		시설내역(유/무)			☎ 또는 이메일
viana grand hotel	2인1실	3500루피	온	수	무	☎ 033)222-1400. 071-4692848
	3인1실	3500루피	냉	난	방 유	이메일
	기타		아침식사		무	
숙 소 평 가	깨끗하고 좋음. 방이 넓음.					
sevenro restaurant & holiday home	2인1실	2500루피	온	수	유	☎ 057-3402759. 072-5941062 071-5344072
	3인1실	2500루피	냉	난	방 무	이메일
	기타	주방,거실	아침식사			
숙 소 평 가	식당에서 3끼 식사 해결 가능하고 집 전체(방4개, 거실, 주방)를 빌려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었음. 깨끗하고 좋음. 고산지대라 에어컨이 필요없고 시원하였음.					

9. 사역 경로

사역지	숙소에 서 이동거 리(KM)	이 동 소요시 간	사역지 향후 전망 및 현지인 반응	사 역 지 교회유 무	전도방법
샤프가대 간나 형제 가정교회	10km	15분		유	간나형제 가정교회에서 예 배드림
암바가스도어	15Km	20분	매우 좋음.	무	대중전도와 개별전도(주일 에 차로 데리러 오기로 약 속)
철거민촌	15Km	20분	조금 산만함(예전 팀이 왔던 지역)	무	대중전도(주일에 차로 데리 러 오기로 약속)
조티 팔 러 형 제 가정교회	15Km	25분		유	예배와 교회탐방(화장실 건 축중)

사역지	숙소에서 이동거리(KM)	이동 소요시간	사역지 향후 전망 및 현지인 반응	사역지 교회유무	전도방법
가트왈르왓트	20Km	30분	매우 좋음(차밭 마을)	무	한 집에서 대중 전도(가정 교회 작성함)
가투갈라	20Km	30분	매우 좋음(차밭 마을)	무	대중전도와 축호전도(주일에 목사님 방문 예배 약속)
샤프가렛	15Km	20분		무	다를라자성도가정 심방예배(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도-동역자로 헌신-가정교회 작성함)
모로골라	20Km	20분	조금 산만함(예전 팀이 왔던 지역)	무	대중전도와 개별 방문(목사님 방문 예배 약속)
갈밧디아	20Km	20분	조금 산만함(귀신들린 인 기도로 나옴)	무	대중전도와 축호전도
샤프가대	20Km	20분	매우 좋음. (불교인은 영 접기도거부. 힌두교인은 영접기도함.)	유	축호전도
헤디게다라	20Km	20분	매우 좋음. (사역 마지막 무슬림가정이 신고함)	무	축호전도

● 주일 방문을 허락하는 지역은 앞으로 가정 교회가 생길 가능성이 큰 지역임

10. 향후 인터넷 선교 가능한 피 접촉자 정보

성명	E-Mail 주소	영어능력(상/중/하)

11. 소감문 및 회계자료 (첨부)

스리랑카 웰리마다 선교 후기

글: 팀장 이석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4개월여 준비를 마친 우리는 9월29일부터 8박9일 동안 주님으로부터 웰리마다 선교지로 파송을 받았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눅10:3)” 하심과 같이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노심초사 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사역기간 내내 함께 해 주셨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웰리마다 라는 영혼의 들녘은 불교 색 짙은 별판 이였고 “회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웰리마다에 도착한 우리는 도착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곳의 작은 겨자씨로 심겨지기를 기도하며 다짐했다.

사역 첫 날 현지인 가미니 목사님과 함께 영혼의 들녘을 나눴다. 지난해까지는 우리들이 준비한 현지 언어와 찬양 전도지 배포가 선교방법의 중심이라면 이번에는 사역자 발굴, 협력선교구축, 현지사역거점(가정교회)마련이라는 목표가 주어져 있다. 따라서 첫 날은 현지인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정탐 사역을 하기로 했다.

다음날 주일은 현지인 가정교회에서 현지인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한 시간여 기도와 찬양이 이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곳에는 싱할라어 와 타밀어 두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통역 또한 가미니 목사님과 간나 집사님 두 분이 담당했다. 두 분의 훌륭한 통역으로 예배는 큰 은혜 가운데 끝났고 우리는 한 여성도의 초청을 받기도 했다.

월요일 우리는 먼저 조티팔러 형제의 가정교회를 방문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는 가난했고 불구에 병든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이었다. 그리고 오후에는 한 마을의 중심지역을 찾아 광장 앞 집에서 집회를 가졌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매주일 그곳에서 예배드릴 것을 약속했다. 광장예배처소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화요일은 주일 예배 후 우리를 초대한 여성도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단 두 번 예배를 드린 초신자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 집에서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요12:1~8)” 말씀으로 통역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난후 그 자리에서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드리겠다고 부탁하고, 우리에게 매우 잘 차려진 점심을 대접했다. 그는 생활이 넉넉했고 집은 커서 수십 명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여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 후에 다른 마을에서 가정방문 중 또 한곳에서 예배 후 가정교회를 요청함으로 주님은 가는 곳마다 우리와 동행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 이렇게 해서 가정교회 두 곳과 앞으로 가정교회가 될 두 곳을 열어주신 주님은 마지막 날 현지인 목사님 덕을 방문했을 때, 롬10:13~15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 받은 자가 가야할 길을 보여 주시고 오후에는 귀신들려 여러 해 동안 고생한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기적을 우리 앞에 보여주심으로 성령님이 선교기간 내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확증시켜 주셨다.

이번선교는 캄보디아를 가려는 우리를 스리랑카로 가도록 명령하시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함께하신 은혜와 감격이 가득한 선교 일정이었다. 할렐루야 !!

스리랑카 선교를 다녀오면서 박미련 은퇴안수집사

이번 선교는 현지 교회를 돕는 지원선교가 주를 이루었다.

이번 선교지 스리랑카 웰리마다 지역의 가미니 목사님은 2016년 9월에 총현교회 협력 선교사로 결정되었다.

이전에 했던 선교와는 매우 다른 협력 선교였기에 처음에는 서먹하고 적응이 잘 안 되었지만 다 마치고 보니 결국은 매우 중요한 선교사역임을 깨닫게 하셨다.

90점 정도의 매우 좋은 선교 정책이라고 느꼈다.

많은 선교 규율 중에 고쳤으면 하는 것이 떠올랐다.

새벽 4시에 출발하는데 핸드폰은 놓고 가라고 하실 때 이해가 안 갔다. 처음부터 선교사를 뽑을 때 규율 사항을 정확히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

가급적 전세계를 감당하는 선교인데 그곳 사람들과 소통이 필요하고 핸드폰에 이메일, 전화번호, 지메일등 적어 놓으면 좋을 편리함들이 있어 가져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차기 선교를 위해 기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핸드폰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구식의 생각은 없애고 선교에서 영적인 문제에 도움이 되는지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앞으로 선교사를 보낼 때는 하나님의 소명을 먼저 생각하고 선교 사명에 적극 참가하는 교인으로서 교회의 규율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선교사를 뽑아서 정예원의 선교사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 되었다.

선교 현장에서의 사역은 너무나 은혜롭고 좋았다.

스리랑카 선교를 다녀와서

14교구 2팀 김성옥 권사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희는 순간 순간 넘어지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방해자가 되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스리랑카 분들은 매우 순박하고, 예의 바르며, 밝은 웃음과 손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유유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가미니 목사님께서 매우 열정적으로 복음만을 전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돕는 사역자인 간나 형제는 가정교회로 집을 내어주신 귀한 형제였고, 그의 딸 마와니(21세)는 신학공부에 마음이 생기길 기도하는 귀한 여종이었습니다.

도와주는 동역자분들이 여러 명 있었고, 그들의 열정적인 기도 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와 대중 전도를 할 때 팀장님의 한국말, 가미니 목사님의 싱할라말, 간나 형제의 타밀말의 통역 소리는 하나님 나라에 울려 퍼지는 찬송소리같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울려지는 예배의 향기 같았습니다. 눈과 가슴이 찡하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두 지역에서는 확실하게 한 가정이 집을 오픈하여 매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여 새로운 가정 교회가 생기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머리가 항상 아픈 한 여인을 붙잡고 기도하던 중 경련을 일으키며 뒤로 넘어가는 것을 계속 붙잡고 계속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고 너무나도 평안하고 밝은 모습을 찾는 것을 보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 현재로는 여러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 사역이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자가 새신자이기에 믿음이 연약하여 교통수단이 없이 먼 곳 교회까지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로는 목사님께서 사역지를 돌아볼 수 있게 고장난 오토바이를 고쳐드리는 것이 더 필요하고, 차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믿음이 성숙하여지면 먼 곳의 교회가 있어도 걸어서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 떠나기 전에 가미니 목사님의 건축 중인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다가 중단되어서 1층의 반 정도만 지어져 있던 교회가 지난 5월 14교구 1팀이 전해준 귀한 건축비로 1층이 다 지어지고 지붕이 올려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14교구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십시일반 봉헌하여, 웰리마다 교회가 완공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미니 목사님과 여러 동역자분들의 헌신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사역이 되어 웰리마다 지역이 복음화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소 감 문

14교구 2팀 강 윤호 집사

스리랑카 웰리마다 지역에 선교를 다녀 왔다.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스리랑카는 정말 아름다운 섬나라였다.

스리:beautiful 랑카:Island. 해석하면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이다.

자연이 주는 선물은 그 섬에 차고 넘쳤다. 지천에 널려 있는 야자수, 두리안, 와라카, 실론티 등등 특히 실론차밭은 자동차로 2시간을 달려야만 차밭을 벗을 날 정도로 산야는 온통 차밭이었다.

그런데 그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듯 했다.

반쯤 거슬린 피부색에 먼지를 뒤집어 쓴 듯 적도의 기온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나 보다.

2200만이 사는 섬나라 사람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집안으로 들어가 보니 낮인데도 어두웠다. 어둠이 지배하는 것이 느껴졌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회복 시키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음이 느껴졌다.

종교분포도를 보니 불교가 74%, 이슬람15%. 힌두교8%. 기독교는 3%가 안된다고 했다.

“주님 우리를 선교의 도구로 써 주소서” 자절로 기도가 나왔다.

선교 현지 까지 이틀 걸려 비행기로, 승합차로 이동했다.

피곤할 만도 한데 팀원 11명 모두 불평 없이 현장까지 잘 도착했다.
주어진 8박 9일, 오며 가며 이동하는데 4일이 걸리다니..... 정상적인가 싶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토를 달 수는 없었다.
주님은 특별한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다.
전에는 2,3명씩 조를 짜서 지역을 나누어 축호전도, 노방전도를 했을 텐데.....
이번 사역은 웰리마다 지역 중에서도 낙후된 곳을 찾아갔다.
도로가 있으나 한국택시기사들이라면 3배를 준다고 해도 가지 않을 곳도 있었다.
주민들을 보니 대부분 신발이 없다. 혹시 신고 있어도 스리퍼 정도였다.
그런 환경속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은 어찌 전할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잠 채우듯, 찬양과 율동을 반복하니
경계하던 마음이 풀어지고, 굳었던 마음이 풀어지며, 찬양과 율동을 따라 했다.
성령님께서서는 찬양을 통해 역사하셨다.
팀장님의 설교 말씀과 가미니 목사님과 간나 집사님의 통역이 불을 뿜었다.
영접 기도를 하고 대중 집회를 마치고 조별로 축호전도를 하였다.
각 집에서는 병든 자를 안고 기도하기도 하고, 집안의 각종 문제를 내어 놓고 기도하기도 했다.
3일째 수요일 저녁 가가호호 방문 전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경련을 일으키며 마구 몸을 흔드는 귀신들린 여인이 있어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서너 명이 붙들어도 감당하기 힘들 지경이었다.
계속 붙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니깐 3,4분 만에 귀신이 나가면서 졸도를 하였다.
계속 찬송과 기도를 하니 조금 후에 여인이 일어나 앉는데 얼굴빛과 눈빛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니 귀신을 내어 쫓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주일날 낮 예배는 가정교회인 간나 집사님 댁에서 드렸다.
50여명 공간이 가득 찼었다. 모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가 넘쳤다.
찬양이 끝나고 팀장님 설교와 가미니 목사님, 간나 집사님의 통역으로 말씀이 선포 되었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말씀이 끝나지 않았다. 현지 성도님들께 “마무리 할까요?” 물으니 더 해달라고 조른다. 예상시간보다 훨씬 넘어 예배를 마쳤다.
놀라운 것은 “다를라자”라는 여인이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내어 놓겠다고 하시면서
이번 선교팀원 전원에게 점심 대접을 하겠다고 하였다. 화요일날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이 적극 돕겠다고 한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예수를 안 믿고 방황하였는데 향아리 기도를 통해 적극 돕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이 신학을 하여 사역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제목이라고 하였다.
아토피로 어려움을 겪는 한 부모님은 가미니 목사님의 기도로 그 자리에서 호전됨을 보고 놀라면서 교회 출석을 약속하기도 했다.
조티팔러 형제의 가정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모두가 놀랐다.
그 형제는 장애인 이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입에 붙어 있다. 온몸은 뒤틀려 부자연스럽지만 그 마음만은 웃음이 떠나지 않는 평온한 모습이었다.

어둠에 잠긴 나라 스리랑카. 이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다.
스리랑카 상공으로 비행기가 진입할 때 주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다.
“주님. 이 땅을 복음으로 덮으소서. 우리를 써 주소서.
이번에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현장에서 주님께서 보여 주셨다.
가미니 목사님, 간나집사님, 조티팔러 형제님, 나자라 여집사님, 사거러 운전기사 형제님과 가족들, 운해군 장로님 가족. 전도 중에 기도를 받고 길 안내와 집을 안내해 준 이들, 이 분들이 앞으로 스리랑카에 큰 일꾼 되어 주님의 나라를 세우리라 확신한다.
이번 선교를 통해 가정교회가 2곳이 확실히 세워지고 2곳은 세워질 예정이며 가두집회 장소 2곳등 모두 6곳 정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할렐루야 !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살롬!